



④

金善慶譯
竹村健一著

譯者：大韓電氣協會 電氣使用合理化 專門委員長

Ⅲ. 밀어닥치는 危機에 대비해서

— 海外의 事情 —

1. 廣範圍한 國民의 理解와 支持 (프랑스)

食卓 위의 한 병의 와인은 그 풍요로운 맛을 맛보기 前에 유럽 문화의 香氣와 傳統의 멋 등이 美術館의 感動이나 라인江의 절벽에 솟아있는 古城을 두루 살펴 旅行한 回想 등으로 人生의 즐겁고 풍요한 部分을 演出하여 준다.

오리엔트 文明과 함께 시작한 와인의 歷史는 希臘 時代, 로마 時代와 詩人들에게 찬양되면서 Julius·Caesar 時代에는 地中海에서 프랑스의 론 江邊을 따라 北上하여 西쪽으로는 보르드까지 到達하였다.

그 後 2世紀에는 불고뉴, 3世紀에는 로열, 4世紀에는 산퍼뉴, 모젤, 라인 沿岸과 유럽을 석권하였다. 나는 이 근방을 자주 旅行한다. 유럽의 에센스가 흠뻑 느껴지는 좋은 地方이다.

와인의 原料인 포도의 재배는 아무데서나 되

는 것이 아니고 溫帶地方의 풍요로운 河流沿岸에 限定되고 게다가 高度의 農業技術을 필요로 하였다. 즉, 와인은 世界에서 가장 번영된 文明 속에서 發展되어 온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河流沿岸은 原子力發電所로 選定되었다.

國民 10人中 한사람이 무엇인가의 形態로 와인의 生産 또는 販賣에 從事하고 있는 프랑스는 1985년까지는 總發電電力量에 占하는 原子力의 比率을 現在의 12%에서 50~55%, 1990년까지는 60~65%로 計劃하고 있다. 2個月마다 1基, 새로운 發電所가 가동한다는 野心的이고 또 대담한 計劃이다.

「프랑스는 資源은 없으나 智慧가 있다」라고 公言해 마지 않았던 지스카르 데스망 大統領은 호메로스나 제우스의 神酒 와인과 人間에게 불을 주어 神들의 노여움을 산 프로메테우스의 子孫의 손에 의한 原子力 등을 共存시키는 確固한 自信에 넘쳐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 自信과 執念의 原子力에 거는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첫째로 그것은 千年의 歷史를 갖는 풍요로운 農村社會에서 새로운 都市社會로, 農業國 프랑스

스에서 工業國 프랑스에의 재빠른 轉換이다. 例를 들면 파리 大部分의 觀光客들로서는 파리는 半徑 5~6km의 行政上의 파리市, 아니 자칫하면 산트노레의 엘메스나 오페라座 근처의 土產物 가게뿐인지도 모르나 事實上의 都市化圈은 半徑 20km, 人口 800萬 以上の 大都市로 變貌해 가고 있다. 그리고 點心時間의 한 때에도 한손에 書類를 들고 비즈니스 話題가 滿發한다. 가까운 장래 프랑스가 유럽 제일의 經濟大國이 되리라 豫測되는 것도 無理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둘째는 프랑스의 傳統的인 愛國心이다. 3色旗 아래 絶對的인 自國의 文化에 대한 긍지가 있다. 나치 獨逸에 對抗한 레지스탕스나 美國이나 소련 등의 超大強國에 대해서는 의연한 自主獨立의 外交姿勢가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아킬레스 踵은 에너지에 있었다.

프랑스의 에너지 供給構造는 그 6割이 石油이고 그 中 75%를 中東에 의존하고 있다. 石炭은 國內炭이 輸入炭에 比하여 60%나 비싸고 그 量도 기대할 수 없다. 赤字를 보조금으로 메워가며 겨우 生産하고 있는 것도 炭鑛勞動者의 失業等 社會的 混亂을 回避하는 理由에 不過하다. 프랑스가 國家의 繁榮과 自主獨立을 지켜 나가기 위하여 原子力을 選擇한 것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나는 이렇게 하여 프랑스의 에너지 事情을 進行形 또는 過去形으로 記述하고 있으나 賢明한 讀者는 이미 日本의 에너지 事情이 프랑스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니까 日本의 경우 未來形이나 願望 등으로는 될 수 없다. 프랑스의 에너지 自給率 24%, 日本 14%, 石油依存率은 프랑스 59%, 日本 73%, 日本의 國產石油은 겨우 0.1%밖에 안된다.

프랑스가 1985년까지에 1次 에너지에 點하는 原子力의 比率을 24%로 하려고 確實한 豫定을 잡고 있었는데 日本은 6.7%이고 過去 이 日本의 計劃은 자주 삭감 수정되어 왔다.

우라늄 資源에도 限界가 있다는 論議가 있다.

事實 그렇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우라늄의 有效利用을 위하여 꿈의 原子爐라 불리우는 高速增殖爐의 開發에 精力의이고(이 分野에서는 世界第一) 實用直前의 實證爐 슈퍼페닉스(出力 120萬kW)가 完成되었다. 프랑스에 있는 우라늄 量은 輕水爐로 使用하면 北海油田의 石油 매장량 的 3分の 1에 相當하는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플루토늄까지 高速增殖爐로 使用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매장량에 匹敵한다고 한다. 과연 프랑스에는 「資源은 없지만 智慧가 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日本에서는 動力爐·核燃料開發事業團이 쓰루가市에 建設着工 예정이었으나 地方民의 反對로 難航中이다. 벌써 프랑스에는 10數年이 뒤졌는데도 이러니 더욱 더 큰 격차가 생길 것이다. 原子力發電을 進行시킨다는 것은 高速增殖爐에 연결된다는 것을 前提로 하지 않으면 長期的 우라늄 資源의 利用은 안되는 것이다.

우라늄 농축에 대하여도 프랑스는 이태리, 벨지움, 스페인, 이란의 5個國과 協同하여 유로디프를 設立, 1979年에 生産을 開始, 日本도 1980년부터 10年間 1,000톤 SWU(分離作業單位)/年을 위탁하였다. 다시 또 第2의 플랜트(코레디프) 建設도 計劃하고 있다.

高 레벨 放射性폐기물의 저장·廢棄는 原子力發電에서 가장 애로사항이라 하고 있으나 프랑스는 이것도 獨自的 研究結果, 유리 固化技術을 開發하여 '78年부터 工業規模의 設備를 運轉하고 있다 한다. 파리 郊外 사쿠레 原子力 센터의 說明에 의하면 유리 固化된 폐기물을 프랑스 南部의 산프리에스·라·부류뉴의 우라늄 폐광에 매몰하는 것도 檢討中이고 또 將來에 技術의 進歩를 기다려 다시 叩집어 낼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現在는 라·아그의 再處理工場 근처의 큰 貯藏고에 保管하고 있어 가까운 將來에 그 設備의 擴張도 계획되고 있다.

프랑스의 原子力 開發의 順調로운 進涉은 強力한 中央集權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사람이 있다. 한마디로 全部 否定할 수는 없으나 그 보

다도 國民의 理解와 支持에 있다고 본다.

英國의 北海油田, 서독의 石炭等에 比하여 프랑스에는 資源이 없는 것을 國民은 잘 알고 있다. 에너지 不足에 의한 經濟의 不安定, 物資不足, 物價上昇을 두려워 하고 있다. 내가 TV 등에서 자주 반복하고 있는 「原子力이 있음으로 인한 危險性보다 그것이 없음으로 인한 危險性」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例의 드리마일 島의 TMI 原發事故 直後에도 지스카르 데스탱 大統領이나 지로 工業長官이 TV에 出演하여 「TMI 事故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지만 原子力發電은 不可缺少한 選擇이며, 앞으로 계속 進行시킬 豫定」이라고 確信에 넘친 發言을 하였다고 한다.

議會에서도 多數派 RPR(154명)와 UDF(123명) 兩黨 모두 原子力 推進은 물론이고 共產黨(86명)도 原子力 그 自体는 支持하고 있다. 그러나 野黨이기 때문에 現政權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 原子力開發의 當事者로부터 政府를 排除하고 原子力과 電力廳만으로 進行시켜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매스컴도 프랑스의 에너지 事情과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여 反對의 태도를 取하는 일이 적은 것 같다.

原子力은 왕왕 政治의 道具가 된다. 原子力은 확실히 潛在的으로 危險性은 높다. 그러니까 野黨은 政府攻擊의 好材料가 된다. 그러나 責任있는 立場에서 나라의 에너지 政策을 考慮할 때 資源이 없는 나라로서는 原子力을 否定하는 것은 現實的이 아니다.

한편 資源이 豊富한 나라는 原子力을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事實 美國에서는 最近까지 原子力은 忌避對象이었던가. 오스트리아에서도 完成되어 가는 原子力發電所를 國民投票로 拒否하였다.

與野黨을 不問하고 原子力을 肯定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반대는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農業地帶인 北西部에서는 反對하는 運動이 現在도 展開되고 있다. 슈퍼페닉스에 반대하는 大集會가 警察의 가스 銃으로 排除된 일도 있다 한다.

그러나 最近에는 그러한 反對運動도 鎮靜되어 가고 있다 한다.

앞에 記述한 사쿠레이 原子力 센터 所長에 따르면 反對派는 他國에서 온 外人部隊가 中心인 것이고 젊은 世代의 반대와 大部分은 原子力 그 自体에 대한 反對가 아니고 體制批判— 에스터 브리슈멘트 批判으로서 一種의 流行病과 같은 것이라 한다. 最近 原發立地點에서 反對派가 行한 앙케이트 調査에서도 62%가 原子力 發電所의 建設에 찬성하였다고 한다.

先進工業國中 프랑스와 日本의 에너지 事情은 極히 좋지 않다. 自給率, 石油依存度 共히 그러하다. 그러니까 나는 日本으로서 따라야 하는 것은 美國도 英國도 西獨도 아니다. 프랑스라고 主張하여 왔다. 특히 原子力의 開發에 있어서.

프랑스에서 배울 점은 또 있다. 石油獲得을 위한 外交姿勢이다. 當分間 原子力만 있으면 石油가 전혀 필요없다고 할 수는 없다. 化學工業이나 自動車等 石油가 아니면 안되는 것이 많다. 그래서 지스카르 데스탱 大統領은 미라쥬 전투기라든가 戰車等과 같은 버게닝 파워를 가지고 中東을 빈번하게 訪問하고 있다. 政情不安의 中東으로서 欲心나는 것은 돈이 아니고 武器이다. 버게닝 파워를 가지고, 그리고 지스카르 데스탱 大統領은 그 長身の 스마트한 貴族的 風貌를 가지고 어깨를 일싸 안는 外交를 하는 것이다. 美國이나 英國, 尙차 日本은 발 밑에도 못미친다. 그 위에 產油國에 대한 技術·經濟·文化面에서의 協力, 오일 달러의 프랑스 國內에의 投資歡迎, 지스카르 데스탱 大統領이 提唱하는 트리로그(歐洲, 아랍, 아프리카 對話) 構想과 中東諸國과의 글로벌한 關係強化策은 알미울 뿐이다.

프랑스의 원숭이 흉내를 내라는 것은 아니다. 國家의 장래가 에너지 確保如何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것이 明白하므로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日本 獨特한 에너지 外交의 확립과 國民 한사람 한사람의 自覺— 이것은 기다리고 있어 되는 것이 아니다. 알리는 方法을 선택하여 즉시 實行해야 한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본다.

2. 캐나다 爐에서 結實을 본 自主技術 (캐나다)

原子爆彈과 原子力發電이 전혀 다르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다. 原爆은 우라늄 235를 100% 가까이 농축하여 爆發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原子力發電은 同一한 우라늄 235라도 겨우 3%程度의 농축이다. 爆發시키려 하여도 결코 爆發시킬 수 없다. 어떠한 著名한 原子力反對派의 學者라도 이를 認定치 않을 수 없다.

드리마일島 原發事故時에 떠들어 맨 “爆發의 危險性”이란 것은 核爆發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고 原子爐中에 고인 水素가 爆發한다는 것이었으나 例에 따라 新聞의 標題만 보면 核爆發이 일어난다는 듯한 印象을 주는 것이었다. 水素의 爆發은 水素와 酸素가 一定한 比率의 濃度가 되었을 때 일어난다는 것인데, 日本의 경우 原子爐內에는 窒素를 넣고 있기 때문에 그 水素의 爆發도 있을 수 없는 實態이다.

피커링은 캐나다의 토론토市 東쪽 20마일 地點에 있는 어느 시골의 이름으로, 그곳에 있는 것이 피커링 原子力發電所이다.

日本人은 原子力에 대하여 이상하리만큼 神經質인 것 같다. 그것은 核 알레르기라는 것이다.

여기서 “原爆”과 “原發”이라는 표면에 대하여 말하고 싶은데, 日本人이 말을 멋대로 省略하는 것도 좋으나 이러한 呼稱을 누가 만들었을까? 混同시키기 위해 意圖的으로 사용하는 反對派는 不得已하나, 國民에게 正確히 理解시키기 위한 適切한 呼稱方法이라 생각할 수는 없다. 原子力 問題는 왕왕 技術的인 것보다 心理的인 문제가 크다고 본다.

온타리오 湖에 面한 적은 部落 피커링은 지금 하나의 큰 原子力發電 基地가 되려고 하고 있다. 現在 4기가 가동중이고 4기가 建設中이다. 發電所까지의 高速道路 要所要所에 三角錐의 이상한 모양의 建物이 눈에 띈다. 冬季 高速道路凍結을 防止하기 위한 소금 貯藏庫이다. 이러한 것으로도 캐나다의 嚴冬과 一人當 에너지 消費

가 世界第·이라는 것을 推測할 수 있다.

CANDU 爐라 불리우는 캐나다의 原子爐는 캐나다가 獨自的으로 開發한 것이다. 天然 우라늄을 그대로 쓰는 것이 特徵으로, 日本에서도 導入의 是非가 論議되었다. 導入論은 우라늄 資源이 풍부한 캐나다와의 資源外交上的 理由 등을 들고, 反對論은 耐震性和 日本이 開發中인 ATR (新型轉換爐)와는 거의 同種으로서 限定된 技術者를 分散시킬 수 없는 理由 등을 들 수 있다. 原子力委員會로서는 앞서 「輕水爐의 定着化, 新型爐의 開發等 시급히 解決하여야 할 많은 問題가 남아 있는 것을 고려하면 CANDU 爐를 導入하는데 있어서의 積極的인 이유를 現段階에서 찾기 어렵다」라고 一段의 結論은 나온 것 같다.

한편 캐나다로서는 이 CANDU의 輸出은 國策일 뿐 아니라 캐나다 國民의 뜨거운 期待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캐나다는 先進工業國中에는 他에 例를 볼 수 없을 만큼 外資 支配를 받고 있고 특히 美國資本에 의한 產業支配가 현저하다. “美聯邦 캐나다州”라 불리며 隣接하는 美國에 대하여 日本人으로서의 想像도 할 수 없는 劣等感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現在 “BUY-BACK 戰略=産業의 캐나다化”가 제창되고 있으며, 단지 豊富한 資源을 輸出할 뿐 아니라” More Processing (보다 附加價値가 높은) 完成品 輸出이 오랜 目標이고 꿈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原子爐라는 高度 技術의 自主 開發은 캐나다 사람들로서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이었나를 쉽게 想像할 수 있다. CANDU 爐가 開發되었을 무렵 비지니스맨, 技術者들은 “We can do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快哉를 불렀다고 한다.

그러나 캐나다의 자랑 CANDU 爐를 輸入한 印度가 들인 核실험을 行하였다. 核擴散의 위구가 높아지고 美國은 核不擴散을 강하게 世界에 호소하였다. 캐나다로서도 豫想도 하지 못하였던 印度의 核實驗이다. 그 때문만은 아니지만 가장 高度이고 高價인 商品 原子爐의 輸出에 暗

影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期待하였던 日本에서도 反應이 없었다. 豫定되고 있던 알젠틴이나 韓國으로의 輸出도 무산되었다.

“We can do”라고 잘채하였던 사람중에는 지금은 작은 소리지만 “We can not do”라고 自潮的이 된 사람도 있다고 한다.

原子爐의 輸出은 시원치 않으나 캐나다는 先進 7 個國中 唯一한 에너지 輸出國이다. 즉, 에너지 自給率이라든가 依存度라고 하는 單語는 캐나다에는 적절치 않다. 굳이 말한다면 輸入依存度는 마이너스 3.3%이다.

石油, 天然 가스, 石炭에 부가해서 660年 동안이나 쓸 수 있는 방대한 量의 오일샌드, 거기에 우라늄도 있다. 그리고 또 캐나다에는 化石燃料外에도 나이가가라의 爆布를 想像하여도 알 수 있듯이 豊富한 水資源이 있다.

나이아가라에는 美國 폭포와 캐나다 폭포가 있는데 캐나다 폭포는 幅 900m에 이르고 48m의 落差로 毎時 180億ℓ의 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 되는 1.8ℓ 이므로 1되병으로 하여 百億병, 1되병의 밑바닥 直徑이 10cm라고 하면 가로로 배열하더라도 100萬km가 된다. 地球를 25周하는 計算이 된다.

나이아가라는 인디언 말로 “雷와 같이 울리는 물”이란 의미라고 하지만, 眞實로 自然의 驚異, 奇를 멍하게 하는 轟音은 年間 1千4百萬名이나 되는 觀光客에게 캐나다의 넘치는 資源의 풍요로움을 과시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한 캐나다는 그래서 發電總量에 占有하는 水力發電의 比率이 높아 '78年의 實績은 實로 70%나 되었고 電氣를 美國에 輸出까지 하고 있다.

그러한 캐나다가 原子力을 積極的으로 進行시키고 있는 것이다. 原子力은 電氣밖에 안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日本을 위시한 先進工業國에 있어서는 에너지 總消費의 伸長보다 電力消費의 伸長率이 높다. 電氣는 사용하기 쉽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1975년부터 '90년까지의 長期計劃으로 總發電能力을 2.5倍로 하고 특히, 原子力에

대하여는 11倍 높여 電源中의 約 20%로 하려고 하고 있다. 資源大國 캐나다가 말이다.

3. 原子力發電의 파이오니어(英國)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侵攻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制裁措置를 支持한 鐵의 女人 英國의 대처 首相. 라우닝街 10番地 首相관저의 女主人은 장래의 에너지 需要의 增大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核融合, 太陽 에너지 등의 代替 에너지의 利用도 長期的으로는 有效하다고 하면서도 現在의 타임스케줄 內에서 充分한 供給을 가능케 하는 것中의 唯一한 것은 原子力發電이다 라고 明言하고 있다.

英國은 2次大戰 후 他國에 앞서 原子力 平和利用을 위한 研究開發에 着手한 나라이다. 특히 原子力을 發電에 利用하는 것에 着眼하여 1956年 世界最初의 商用 原子力發電所(몰더홀型 出力 5萬kW)의 運轉에 成功하였다(日本最初의 商用 原子力發電所인 東海 1號爐는 이와 同型을 英國에서 輸入한 것이다). 따라서 北海油田의 開發로 오히려 產油國隊列에 끼게 되었다 하여도 過言이 아닌 英國이지만 그에 自慢하지 않았다. 原子力發電의 파이오니어로서의 技術의 卓越을 가지고 포스트 北海油田을 目標로 原子力開發에 한층의 힘을 쏟고 있다.

日本の 저널리스트 등이 구미각지의 原子力事情을 視察, 取材하였다. 다음은 同視察團이 英國의 에너지 省 次官·무어 政務次官과 인터뷰한 內容의 報告書를 抄録한 것이다. 또한 取材後 入手한 데이터도 약간 補完하였다.

무어 政務次官은 런던·스쿨·오브·이코노믹스 卒業後 多彩로운 경력을 거쳐 現職에 就任하였는데, 1937年生이다.

-北海油田 개발의 成功으로 英國은 當分間 에너지의 自給이 된다고 듣고 있고 또 石炭도 豊富하다고 하는데 原子力의 필요성이 있는가.

答 英國의 石油消費는 年間 約 1億톤으로 北海油田은 이를 상회하는 生産能力이 있으나 19

90年 이후가 되면 北海油田 自給量에 미달될 것이다.

- (OPEC와 같이) 北海油田의 温存策을 취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答 英國政府는 1981년에는 8千5百~1億5百萬톤, '82年 9千~1億2千萬톤, '83年 9千5百~1億3千萬톤, '84年~9千5百~1億3千5百萬톤으로서 이는 從前의 生産量을 상당히 削減하여 資源温存의 方向이 확실하게 되었다. 이는 물론 英國의 에너지 自給을 될 수 있는 한 오래 지속시키기 위함인 것이다.

- 北海油田은 로우설퍼로 良質인데, 半은 輸出하고 半은 輸入한다는 것은 에너지 節減面에서 損害가 아닌가?

答 現在 生産量의 約 半은 英國으로 보내져 소비되고, 半은 輸出하고 있다. 한편 英國은 中東 등에서 輸入도 하고 있으나 이는 北海石油은 高價로 팔리는 良質의 輕質油이기 때문에 이 相當部分을 輸出로 돌리고, 國內消費의 不足分은 相對적으로 廉價인 中東의 重質油 輸入으로 補充하고 있다. 運搬은 北海에서 로릴담으로 運搬하는 것보다 中東에서 大量으로 運搬하는 것이 오히려 싸다.

- 北海油田의 開發은 어느 程度 期待되는가?

答 北海는 험한 氣象條件에 있고 高度의 技術과 設備投資가 필요하다. 따라서 작은 油田으로서는 採算이 맞지 않는다. 廉價인 掘削 시스템을 연구중이다. 北極大陸의 大陸棚은 有望하나 이는 英國 것이 아니고 노르웨이 것이다. 앞으로 이들 沿岸에 接한 소련, 핀란드, 캐나다 등의 움직임이注目된다.

(其他 利益의 80% 以上이 國家收入이 되는 北海油田의 稅制問題等은 省略)

- 英國의 石炭 可採매장량은 450億톤으로 방대하다. 活用方案은?

答 石炭廳의 經營은 힘들다. 1977년에는 2千萬 파운드의 黑字였으나 '78년에는 1千9百萬 파운드의 赤字였다. '78년에는 1億7千2百萬 파운드의 政府補助금이 주어지고 있다. 그러

나 石油價格의 상승으로 石炭은 石油에 대하여 充分한 價格競爭力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經營도 改善될 것으로 생각된다. '90年代에는 포스트 北海石油에 대비하여 石炭을 大幅으로 增産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新規投資도 적극적으로 進行시킬 方針이다.

또 1979年의 發電用 에너지 構成은 石炭 73%, 石油 15%, 原子力 10%, 天然 가스·水力 1%로 되어 있으며, IEA 권고에 따라 英國은 가장 많이 石炭을 活用하고 있다고 生覺된다. 다시 英國政府는 石油發電을 서서히 石炭 및 原子力으로 轉換시켜 石油發電을 全廢할 方針이다.

- 石炭의 液化·가스化에 대하여

答 雙方 모두 英國에는 오랜 研究開發의 歷史가 있어 어느 나라와 比較하여도 最高라 생각된다. 그러나 北海油田이 있으므로 戰略적으로 언제 實用化하느냐 하는 어려운 選擇에 쫓기고 있다.

- 지난 해 드리마일島 事故가 있었는데도 不拘하고 英國은 同型의 輕水爐(PWR)를 앞으로 採擇한다고 들었다. 世界最初의 商用爐 이래 英國은 獨自의 技術을 쌓아 올린 것이 허사가 아닌가?

答 TMI 事故에 대하여는 下院의 에너지 特別委員會가 여러 角度로 조사를 하였다. 그 結果, 채택하여야 할 爐型으로서 PWR을 選定하였다. PWR은 世界의 추세이고 이는 결코 AGR(英國型 가스爐)가 不良하였기 때문이 아니고 AGR→PWR→FBR(高速增殖爐)로 連結되어 가는 技術進步의 필연적인 現象이라고 생각된다.

取材班의 질의는 日本도 委託하고 있는 英國의 使用이 끝난 燃料의 再處理問題나 우라늄 濃縮, 나아가 SAVE-IT 캠페인으로 效果를 올리고 있는 에너지 節減들로 계속되었다. 그러나 대처 首相이 이끄는 英國政府는 장래의 原子力計劃으로서 1982년부터 每年 1基씩 原子力發電所(10년에 1千5百萬kW)를 建設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原子力政策을 發表하고 進涉中에 있다.

(다음號에 계속)